

2017.06.16



질병관리본부
KCDC

한여름 바닷속을 조심해!

비브리오

패혈증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요즘,
이제는 여름도 코앞으로 다가온 듯 한데요
휴가철을 맞아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진 않나요?
시원한 바다에서 수영하고,
싱싱한 해산물을 먹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나! 여름철 따뜻해진 바닷물에는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름철 물놀이와

어패류 등의 음식물을 먹고 조리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무엇인가요?

|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에 의한 급성패혈증입니다.
주로 여름철에 해수온도가 18°C~20°C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익히지 않은 어패류



상처난 피부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 것 또는 덜 익혀서
먹은 경우 또는 상처난 피부로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됩니다.

외국에서는 타투를 한 지 얼마 안된 남성이 바다에서
수영 후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름철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의 **예방수칙** 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01. 어패류를 완전히 익혀 먹습니다.



02.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타투를 하고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도 바닷물에 발을 담그거나 수영하면 안돼요~)



03. 어패류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04.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합니다.



05. 어패류는 5°C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85°C 이상 가열하여 익힙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복통



구토



발열

건강한 사람에서는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에서는 **발열, 오한, 저혈압, 피부괴사** 등
패혈성 쇼크의 증상을 유발하여, **패혈증**으로 발병하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 고위험군 :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 인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환자

2017.06.16

질병관리본부
KCDC



비브리오패혈증 외에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예방수칙** 을 미리 숙지하고 예방하여
올여름 사랑하는 연인, 친구, 가족들과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합시다!